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교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나의 믿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나이다
(골로새서 3:21)

주간 총현

발행처: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달고 오묘한 그말씀(금요집회) · 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2)

을 요구하신다. “너희 마음에 욕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욕욕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설 수 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수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의의 수준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율행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명심하자. 외와 성적인 순수함은 모두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죄가 아님답게 포장되고 돈보이도록 과시되며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문란한 습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순결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측케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네 백재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측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네 백재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9,30).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어서 오른 눈을 빼어 내버리고, 오른 손을 찍어 내버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지 결코 눈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가?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하다. 만일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다 하라는 말씀이다. 죄를 가지고 어영부영 장난치기 말라는 말씀이다. 율행을 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이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수준의 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이러한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순수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의 통치하심을 아는 삶이다. 한결같이 네 나이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통치하시

는 자들이나 장래에 임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율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마 5:31,32). 이혼과 재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정하여 결혼을 해버린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싫증나 나면 현실적처럼 내버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이다. 오늘날 이런 문제를 죄악으로 여기며 애초부터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조건은 하나뿐이다. 어느 한쪽이 율행을 하여 혼인서약을 깨뜨릴 때에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율행 외에 다른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것은 극악한 죄이다(레 20:10). 왜냐하면 이러한 이혼은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간절하고 안정된 가정을 세우려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 돌아가야 한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첫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군의 성임이요 네 버리라고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 5:33-37).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문자 그대로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인가? 아니다. “네가 맹세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네 말을 믿을 수 있다만, 바로 그 자체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를 아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말 자체가 사실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정직의 율행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정직의 율행을 자신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나라의 의로 돌아가자. 정직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도록 하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도 해를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9-42).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이다. 사랑의 법이다. 이러한 의로 돌아가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어야 한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1인1명 전도를 실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복음에 갈급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여 그들을 돕고자 해도, 우리 자신이 아는 게 없으면 실제로 도와줄 수 없음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구역공파를 인도하는 구역장들과 교회학교에서 분반공부를 지도하는 교사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풍성한 공급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깊이 공부하고 더 풍성한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례를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국내전도를 생활화하고 해외전도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남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 옛날에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몸에 수는 없다.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 지금도 있어야 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자”

2004년도 후반기 교육훈련, 은혜롭게 진행 중

우리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주간 성경공부를 비롯한 교사양성부, 찬양대양성부, 훈련전도대 훈련이 시작되어 현재 총 620명의 성도들이 등록을 마치고 훈련을 받고 있다. 이미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등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서둘러 등록하고 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훈련 내용은 본당 로비와 교육국에 비치된 안내 팸플릿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교육국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다(내선 473). 등록 장소는 교육국 2층에 있는 교육국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골 3:22)라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 훈련의 모든 성도들이 후반기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기를 바란다.

제37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시간: 오늘(19일) 주일4부 예배후 장소: 본당

I WILL NOT BE SHAKEN

***“...He only is my rock and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shall not be shaken.”***

(Psalm 62:4-8)

In Psalm 62, David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period in his life. He has experienced physical affliction. In his suffering, he addresses four key areas. The first concerns himself, “My soul waits in silence for God only; from Him is my salvation”(v. 1). The second deals with the devil and his demons. “They have counseled only to thrust him down from his high position; they delight in falsehood; they bless with their mouth, but inwardly they curse”(v. 4). The next regards his friends, “Trust in Him at all times, O people;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God is a refuge for us”(v. 8). Lastly, he thanks the Lord by relating, “And lovingkindness is Yours, O Lord, for You recompense a man according to his work”(v. 12). When temptation is heavy, and your suffering is great, those in the Lord who have reached unfathomable depths find wonderful treasure. Just think of the worst suffering ever, Jesus’ death on the cross. He lowered Himself to rock bottom, and there saved the whole world. What glorious treasure! David found his treasure in the Lord, “He only is my rock and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shall not be shaken”(v. 6). If the Lord God is your rock, and you believe He is your only salvation, then life’s troubles and tribulations cannot devastate you. Let us look now at some of the problems that try to shake you up in life.

Satan and his demons constantly search for ways to ruin your life. Jesus told one of His disciples,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manded permission to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Lk. 22:31-32). The devil insists on attacking you. He likes to hurt you through your desires, family, work, and any which way he can. His persistence is unwavering, for he never takes a vacation. 1 Peter 5:8 tells us,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Satan wants to destroy you. He will take advantage of any opportunity you give him. As such, the Bible tells us,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stand firm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Eph. 6:11). When you submit yourself completely to God, you can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Jam. 4:7). If you depend on God, the devil cannot shake you, “For the king trusts in the Lord, and through the lovingkindness of the Most High he will not be shaken”(Ps. 21:7).

Sin strives to damage your life. The progression is frightening and certain, “Then when lust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when sin is accomplished, it brings forth death”(Jam. 1:15). Your sins always separate you from God, they hide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does not hear”(Isa. 59:2). Sin is sneaky and serious. Romans 5:12 tells us,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Praise God for His grace, “For since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also cam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1 Cor. 15:21-22). Christ destroys the root of sin, and His blood washes away any after growth. Only Jesus can repair the terrible damage of sin, and restore you 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ffliction tends to turn your life away from God. When unbelievers urged the church at Thessalonica to reject their faith, Paul sent Timothy to strengthen and encourage them, “so that no one would be disturbed by these afflictions”(1 Thess. 3:3). Paul told them, “for this reason, brethren, in all our distress and affliction we were comforted about you through your faith; for now we really live, if you stand firm in the Lord”(1 Thess. 3:7-8). Believers must stand firm in the Lord. The Bible clearly says,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allow the righteous to be shaken”(Ps. 55:22). This is a promise you can depend on.

Friends, even best friends, challenge your relationship with God. Believers experience this all the time with family. If it is not your kids, then either your husband or wife, or mother or father tries to move you to place them above God. Do not be fooled by thinking God understands and excuses this situation. It is absolutely the devil’s work. He uses your family and friends to pull you away from God’s work. The result is death, so do not be deceived. When God called Paul to Jerusalem, the Holy Spirit informed his friends, through a prophet who touched his belt, about the terrible things that would happen to him there. They begged him not to go, but Paul answered them, “What are you doing,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For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even to die at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Acts 21:13). Even Paul’s closest associates tried to dissuade him from doing God’s will, but he was not moved. Your loved ones know you well, and sometimes they use this knowledge against you when God’s way is not pleasant. Their advice is given out of love, but it is human counsel, not godly wisdom. 1 Peter 1:10 reminds us, “Therefore, brethren, be all the more diligent to make certain about His calling and choosing you; for as long as you practice these things, you will never stumble.”

My dear friend, life is full of adversity. Suffering will ruin and damage many people. Some will turn away from God, and still others will hav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disrupted. How will you handle life’s afflictions? They are sure to come! Please hold tightly to the grace of God by faith, so that during the hard and problematic times you will not be shaken. Amen. 🙏

다음 주일 설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

(시 62:4-8)



강성관 목사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네 가지 영역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1절).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마귀와 귀신입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로다”(4절).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자신의 친구들입니다. “백성들이 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8절).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다룬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12절).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무겁게 짓누르고 고난이 극심할 때에도 오히려 거기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닦으셨고, 그럼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람이지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6절).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반면 고난이나 역경도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여 놓을 수 있는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어도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킬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네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정하여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 군게 하라”(눅 22:31-32).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정욕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다른 가능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려 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끈적진지 쉬운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사단의 소원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계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면, 여러분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약 4:7 참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흔들여 놓을 수 없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시리라”(시 21:7).

죄의 유혹이 죽기 살기로 뒹뒹거리어도

죄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손상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뒹뒹거리며,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듭니다(사 59:2). 죄는 온밀하게 다가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도다”(롬 5:12).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찬송

하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고전 15:21,22).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저질러 놓은 죄라도 모두 말끔히 씻어 없앱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만들어 놓은 끔찍한 파괴를 고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괴롭게 하여도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버리라고 촉구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살전 3:3).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살전 3:7,8). 신자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잠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여러분의 친구들,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자들은 가장 안에서 항상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소중한 여기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대충 넘어가주실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역사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을 때, 성경에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만졌던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바울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곧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함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b). 심지어는 바울의 가장 친한 동료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바울을 뜯어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좁은 길, 곧 고난의 길로 걸으려 할 때, 그들은 그런 지침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반대합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벧후 1:10).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를 따르면

(요 10:24-29)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해 기다렸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가 그리스도라는 바치 말하시요"(24절 b).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찾으면 마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끊임없는 의심 속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요 기막힌 일인가!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적인 성의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비참한 결과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10:25b,26).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다. 그렇다. 오직 믿음이 땀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네 가지가 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단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샘물로서 결코 다함이 없다(렐 2:13, 계 22:17). 예수 그리스도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샘물을 주신다. "멸절 곧 날 곧 난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 7:37-38). 이 말씀은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많은 자식도 믿는 영도 많은 명에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결코 주리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참 생명이시다. 율법은 양식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시다. 참 생명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세상에 주시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 영혼이 주려 있는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풍성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이런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 오르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시행해 주신다.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지 모른다.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그 분을 믿고 따르도록 하라. 어찌 이 큰 혜택을 등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려 하는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진실로 회개를 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 육신을 벗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이다(히 9:27, 롬 5:21).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모든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위의 네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왜 그런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실제로 있기를 바란다. 날마다 더 낮아지고 깨져 십자가를 더 높이고 자기는 더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

장로칼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박정구
(장로, 호스피스 회장)



총련교회의 5대 목표 중의 하나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봉사위원회를 주축으로 '총련 호스피스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남은 생애를 가능한 편안하게 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련의 호스피스스는 그것 외에도 한 가지 더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기 환자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돕는 것이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총련 호스피스의 궁극적인 목표요 사역이다.

물론 다소 힘든 학제적인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4명의 총련 호스피스 대원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하였다. 이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실습을 해야 한다. 현재는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목동병원, 안양병원, 국립의료원 등에서, 그리고 환우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총련교회의 환우 열 분도 봉사의 혜택을 받고 있다. 1차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쳐야 하는데, 지난 봄까지 총련 호스피스 대원 21명이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쳐 1차 교육을 이미 수료하였고, 지난 4월에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실시한 호스피스 봉사자 자격 인증시험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였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면, 내년에는 '총련 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회'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그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예수님은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가리사 광인을 찾아가셨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야 한다. 질병에 걸려 죽을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 수 없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가라 명하신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일 백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꼴아꼴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것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꼴아꼴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마 15:4-7).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마음으로부터 영혼과 육신을 돌보고 싶다. 오늘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환우들을 찾아가 섬기고 싶다.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가 될 줄 믿으면서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후 CMTC훈련을 받고, 기도로서 무장하며 돌잡이 어린아이와 같이 한 발 한 발 내딛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해도 잘 돌아가지 않고 생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하실 안에서, 길을 가면서 위우고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이해하기도 않고 해도 잘 돌아가고 나름대로 정감이 가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짜에 맞추어 면접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처럼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장로님 앞에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장상하신 성직으로 두 명씩 골라주실 때도 전도 시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나라 언어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했습니다. 장로님은 잘했다고 칭찬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최선으로 보여드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중에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허리부터 발목까지 허물을 잡아 당기는 듯이 아팠습니다. 생긴 병원에 한번 가서 알던 제가 정형외과에 환원까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통증으로 인해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몇 번씩 먹어도 안아서 몸을 먹을 수도 없었고 횡단보도도 세 시간 안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인근을 다니다보니 연락한 존재이며, 절로 웃음이 솟아나며 충격을 주어도 산산이 깨져지고 마는 힘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을 통해 기도의 위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선교를 향한 나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심으로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전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루 빨리 선교회에 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만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팀 12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임바냐의 하나님께 함께 출발하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어 사랑과 겸손, 그리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주님을 믿어, 그나라가 복음화 되리라 믿으며 이 길을 나아 가겠습니다.

조숙진(집사, 7교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를 열매에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간양으로 두렵히는 남편과 가족들을 뒤로 하고 선교를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령한 대로를 초월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능력자인 그분의 힘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 마음은 평강과 안위를 덧입을 수 있었다. 그렇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나는 빈민과 고뇌가 나를 위감을 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치고 비천과 풍류에 처해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님을 느꼈 수가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영적 싸움이 치열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십자가 밑에 묻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온 전하보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아름답고 청아한 마음의 발에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온 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작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을 비교해 보았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모든 약조건 속에서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다. 영생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먼저 알고 저 초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 감사했다.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신 분께 오늘도 초영혼을 맡겼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 감사가 나온다. 신앙의 한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니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내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뿌리고 온 복음의 열매를 거두소서!

김영구(집사, 3교구)

어디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작년 선교를 준비하면서 입대 신청을 해두었던 것이 이번 달로 결정되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작년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already 1년이 훌쩍 2004년 선교를 파친지 선교를 파친지 다시 보고서를 쓰고 있다. 작년에 다녀온 선교를 통해 나는 선교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이번 선교도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마음을 무장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처음 선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아무 느낌도 없었다. 파친지 선교를 파친지 있는 것이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의 마음은 움직임이 없이 멈추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찾아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아주머니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나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전도지를 같이 읽으며 또한 열정기도를 같이 하며 그 아주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작은 종이 조카한 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출혈하신 보혈이었고 때문이었다. 그 진실한 마음을 잃으신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내 입으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예수님을 심어주셨다. 나의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느낌! 이것은 앞으로도 못 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도와 선교를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기도제목들을 서로 나누며 나는 내가 선교회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번 선교에서 그 기도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 나라의 땅, 공회, 물,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작년 선교 때 내가 깨달았던 예수님과는 또 다른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 그 이름은 앞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영원히길 소망한다.

성경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결국은 어이없는 실패로 이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된다. 더욱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나의 계획이었고 나의 의지였지만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나의 두 번째 선교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났다. 아니, 이제면 군대라는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곳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정남수 (대학부)

◆ 전체 지역종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9월 13일(화)-9월 21일(화)	12교구 추가	왕은철

“도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범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리”
(골 4:3a)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6일(월)-9월 15일(수)	6교구 3지역	윤성철	9월 7일(화)-9월 16일(목)	1교구 5지역	김창국
9월 6일(월)-9월 16일(목)	15교구 5지역	이강근	9월 7일(화)-9월 16일(목)	15교구 4지역	남용철
9월 6일(월)-9월 16일(목)	15교구 추가지역	이갑재	9월 7일(화)-9월 14일(화)	은택교회	이태복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3일(목)-9월 30일(목)	천년1부 7	김창철	9월 24일(금)-10월 2일(목)	5교구 8지역	양기수
9월 24일(금)-10월 1일(수)	2교구 추가	박홍규	9월 24일(금)-10월 1일(수)	천년1부 8	이계인
9월 24일(금)-10월 2일(목)	5교구 1지역	이지은			

‘하사리’를 아십니까?

충현교회 대학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하사리’는 충현교의 대학부를 대표하여, 대학부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가 군 입대한 지체들, 진중 세례식을 통해 충현교회와 결연된 군인 신자들을 위한 마을입니다. 하사리에서는 교회인쇄물 및 대학부소식 등을 보내주어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하며 계속적으로 유익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대학부 및 교구 군 지체들이 각자 소속된 군 부대에서 군 선교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하사리는 매주 토요일 12시에 제2교육관 3층에 모여 예수님을 믿는 군 지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역하여 가정과 캠퍼스,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임합니다. 또한 부족한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보며 민족 복음화 및 주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 주간충현과 충현의 만나, 대학부 주보, 원 미닛 바이블, 생일카드 등을 분류하여 발송하는 사역을 합니다. 대략 130여 명의 지체들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동봉합니다. 시간에 쫓겨 컷간등과 등에 맘을 흘리며 발송준비를 하게 될 때가 많지만 사역에 임하는 지체들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이 보내는 이 문서가 단지 그들에게 귀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담긴 문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을 위로하며 세상의 아픔 가운데 갇힌 자를 풀어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떤 동·하계 군 부대 찬양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최근 전역한 군 지체의 짧은 간증입니다.

이렇듯 하사리는 군 지체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대학부 소그룹입니다. 하사리 사역은 타 소그룹 활동처럼 매주일 어디로 누군가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보면 쉽게 지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사리는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신 영혼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할 때까지 사명감을 가진 지체들이 하나둘 일어나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섬겨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군 결실의 열매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열매를 먹은 군 내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정훈(대학부)

* 충현교회 성도들 중 군 입대한 지체의 주소를 주시면 교회 인쇄물과 대학부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교구영성훈련

이번 영성훈련은 남성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녁집회를 계획했다. 그동안 낮 시간 영성훈련 때의 참여 수는 남성도 4~5명, 여성도 70~80명 정도였는데, 저녁시간에 하면 과연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하고 조심스럽게 고려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성훈련을 준비하였다. 영성훈련 하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과 감대로 사단이 방해하였다. ‘그것과 싸워, 잘 안 될걸?’ 이런 생각이 나의 부족한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오! 주여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간절함 마음으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 집회시간이 다가오면서 비가 그치는 것을 보고 나의 열려가 하나님 앞에 편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5시 30분, 전 교구 식구들이 교회에서 제공한 3대의 구역별로 승차 장소와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거의 전 교구 식구가 승용차를 자제하고 버스에 올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원에 6시 30분에 도착하였다. 어떤 남집사는 영성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하루 휴가를, 어떤 성도는 조비를 하고 참석하였다. 남성도 40여 명, 여성도 110여 명 모두 150여 명이 식당에 모였다. 곳곳에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맑은 웃음, 기쁘고 즐거운 모습들로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에는 오직 살라 있는 양식인 복음을 듣기 위해 본당으로 모였다.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였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려울 때,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기쁨을 맛보는 확신으로 하나님이나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

이어진 기도회를 통하여 위임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교구 일꾼을 위해 그리고 교구 내 환자와 연약한 지체를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한 때는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 수 있었다. 이후에 금요 교구찬양을 위해 찬양연습시간을 가진 후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2004년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심이 크도하시라”(예 3:23) 주재 성구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재 찬송(218장)을 포터로 삼고 주일교구 모임 때마다 교구 모임 150명 출석자와 남성도 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단기선교에 남성도 많이 파송하기, 부활절 달걀콘서트, 지역별 찬양부서기대회, 의료각장, 교구장제 시 남성도가 위외예배에 많이 참여하여 유가곡 위로하기, 교구별 교회 석당봉사 시 지역별 남성도가 많이 참여하여 봉사하기 등등을 통해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 번 영성훈련에 세 힘을 공급해 주는 은혜의 잔치였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교구 내 영성훈련에 참여하여 교회의 하나됨과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조종민(인접사, 7교구 간사)

새가족들에게 띄우는 편지 ②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설교 듣고 찬송하는 일이 즐겁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내 이야기 같아서 온 일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하고 자랑할 줄도 없이 자기 겸손함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처음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빈 손으로 돌려보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나니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면서 자주 물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을 체계 있게 알게 되고 저의 죄인 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할수록 제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 커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들에게서 양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삼 8:17).

윤정연(대학부)

교회탐방 35 에바다부

소리는 없으나 힘 있는 웅변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체다. 그런 면에서 조음기관을 통해서 구사하는 음성적 언어나 몸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같다. 에바다부 사람들은 음성을 거치지 않는 몸으로 주로 주님과 더욱 직접적이고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음이 분명하다. 말을 배우기 전의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에바다부 공동체가 전하는, 소리는 없으나 힘 있는 웅변에 귀를 기울인다.



에바다부를 만난 바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농가인들을 전도하고 또 믿음을 가진 농가인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바다부의 사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전 300'이라는 목표를 세워 삼백 명을 전도하려는 웅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경환 장로, 부장)

에바다부의 일원이 되려면?

에바다부에 나주 동안 열심이 출석하면 교회 새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연령에 맞게 유치부, 학생반, 성인반에 편성되어 양육을 받으려 정착합니다. (박복미 권사, 부장)

종교개혁의 에바다부의 특징은?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학교입니다. 우리 에바다부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학교로 확신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입문으로 듣고 교회를 찾아 온 성도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룬 가정도 많습니다. (김경근 안수 집사)

농가인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농가인들도 교사로 직장에 다니는 분이 많고 또 집이 멀어서 심방에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런 데로 애로가 없이 밤이 늦더라도 심방을 가는 정신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망라해서 심방합니다. (안준모 피택수집사) 11월 총동원 '비전 300'을 위해 편지, 인터넷, 문자 심방 등으로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성욱 집사)

농가인 자녀들을 돌보는 유치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농가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건강 자녀들은 언어의 성장이 느립니다. 그래서 에바다부에서는 부모들이 성인 예배를 드릴 때, 따로 유치부실에서 어린이들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다른 건강 아이들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유치부에서 차츰 자신감을 얻어 나중에는 정상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농가자녀를 위한 부사로 에바다부 안의 또 하나의 교회학교이기도 합니다. (김미애 집사)

장년들을 위한 배려는?

60대 이후부터 장년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문맹이 많고 표준수와를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어 복음 전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복음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장로)

이분들의 뜨거운 열정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철원, 평택, 의정부에서 새벽에 집을 나와 몇시간이고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박복미 권사)

에바다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믿음이 성장에 가야 합니다. 물론 교제만을 위한 교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에바다부에는 구약인(입모양을 보고 말하는 농가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화하는 농가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맞는 교육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김장수 집사)

에바다부 청년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97년 겨울에 T.V에 소개된 것을 보고 총연합회에 왔습니다. 이전에는 일반교회에 다녔는데 듣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에바다부에서 나온 후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른 농가인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변문정 청년)

청년 회장을 맡고 보니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안 했으면 합니다. 교제 위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에바다부에 와서 믿음을 배우고 또 주 안에서 교제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진 청년회장)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주변에 농가인이 있으면 전도해서 에바다부로 보내 주십시오. (김경근 안수집사) 통역자는 오십시오. 대담영입니다. (박복미 권사) 에바다 식구들을 교회에서 잘 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준모 피택수집사)

목사님의 소망은?

세계 농가인 선교 사명에 우리 에바다부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복음 잘 전했으면 안 수고했다"라는 하나님의 한 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인기 목사)

인턴부를 마칠 즈음 두 분의 농가인이 지아철 역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울면서 뛰어왔다. 목사님을 비롯 에바다부 식구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들의 몸짓에 주파수를 맞추고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에바다부 식구들이 지아철 역에 가 보니 어떤 분이 사무실에 물어봐서 가방을 맡겨 두셔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짜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처럼 능력이 많고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교사들도 모두 농가인 위주로 눈높이를 맞춰 의사소통을 하는 에바다부에서, 음성언어로 인턴부를 한답시고 번거롭게 만든 것이 죄송하다. 통역은 얼굴수와 총 특이 표정의 달인 문성욱 집사께서 수고를 해 주셨다. (편지집)

다음 주일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음 주일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시편 119편 54절에 있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다음은 작사자 엘리자 에드먼즈 허윗(Elza Edmunds Hewitt, 1851-1920)의 이야기다. 그가 가르치던 학교에 아주 불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타락하고 그 소년은 지방의 슬레이트로 그녀의 등을 때려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6개월간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고 누워서 투병생활을 하는 중에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는 부서진 뼈를 다시 접합시켜 주셨다.

작곡가 윌리엄 제임스 키르케트릭(William James Kirkpatrick, 1838-1921)은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교회 음악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는 1921년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의 서재에서 찬송가를 작사하다 마지막 절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연필을 손에 쥔 채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담겨져 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찬송하며 따라가리. 할렐루야!'라는 심정을 갖고 불리야 할 찬송이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43	정성준	19	청년1부	홍현구(1)	2559	김익수	19	청년1부		2575	정덕수	14	장년2부	류형원(16)
2544	김인근	8	청년2부	김기영(1)	2560	박태환	13	장년2부	조종선(1)	2576	유한사	19	청년1부	박송진(1)
2545	김지영	19	청년1부		2561	이윤진	19	대학부	김수연(19)	2577	권오환	10	장년2부	이선기(7)
2546	신승문	19	청년2부	정영진(11)	2562	김지훈	19	청년1부	최영호(2)	2578	조미숙	4	청년1부	이이애(3)
2547	최원오	19	청년2부	김기영(1)	2563	손지혜	19	청년1부	왕윤선(1)	2579	박지현	19	청년1부	
2548	배미주	19	청년1부	윤영진(19)	2564	최규해	9	청년1부	이순원(18)	2580	한정민	19	청년2부	김성희(5)
2549	유종현	19	중동2부	조영희(5)	2565	유창욱	4	청년1부	최영자(1)	2581	임순호	19	청년2부	이말선(12)
2550	이자니	2	청년1부		2566	김민지	19	청년1부	한동진(10)	2582	정경호	19	청년1부	김은숙(7)
2551	김민철	1	청년2부	신승철(5)	2567	김유희	13	청년1부	김성재(18)	2583	조성모	19	청년1부	김영진(1)
2552	최규관	19	중동2부	오영희(5)	2568	김민호	16	청년2부	김원희(13)	2584	궁근하	18	소양부	강종열(17)
2553	조성근	19	청년1부	김영진(1)	2569	박정우	19	청년1부	연정선(12)	2585	김성명	7	청년2부	이선영(7)
2554	김길미	10	청년1부	이영희(7)	2570	김영자	12	청년1부	한수미(8)	2586	정재환	7	청년1부	이선영(7)
2555	박대연	19	고등부		2571	김은진	12	대학부	한수미(8)	2587	오자나	19	청년1부	최송진(1)
2556	김길성	19	고등부		2572	박영환	18	청년3부	이현진(10)	2588	한서우	9	청년1부	최종진(7)
2557	변민아	19	고등부		2573	정윤미	19	청년2부	조은화(1)	2589	정성숙	2	청년1부	임희영(12)
2558	정원희	19	고등부		2574	강보라	19	고등부	조현영(1)					

* 총연합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부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 소식

알림

1. 10월 3일자 주간충전 광고 마감 안내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3일자 주간충전 광고마감을 22일(수) 오후 5시 30분까지 합니다.

모임

1. 권사 43회 월례회
일시: 22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안수집사 친한연습참가지훈련
일시: 19일(일) 15:30-16:30
장소: 교육관 301호
3. 남년전도부 월례회
일시: 26일(마음주일) 15:00
장소: 배다나홀
4. 군전도부 월례회
일시: 24일(일) 18:00
(자녀석자 17:00, 만나홀)
장소: 배다나홀
5. 충현초스승봉사단 월례회
일시: 24일(일) 18:00
장소: 계교교육관 501호

별세

1. 홍순영 성도 최경자 성도의 남편, 10교구/8월 별세, 10일 장례
2. 고현환 타교권사 김광진 집사의 모친, 오백옥 집사의 시모, 10교구/9월 별세, 11일 장례
3. 차옥분 성도 오영자 집사의 모친, 남용철 안수집사의 장모, 15교구/15월 별세, 17일 장례
4. 남은근 성도 황성태 은퇴관사의 남편, 18교구 죽전2구역/남용승 안수집사의 부친, 김순련 집사의 사부, 8교구/남용철 안수집사의 부친, 오영자 집사의 시부, 15교구/15월 별세, 18일 장례

결혼

1. 김민준 군(김진성 집사, 백순자 관사의 아들, 4교구)와 박현주 양(박종근 성도의 장녀, 김사자의 딸)/10월 24일(일) 12:30
도곡동 군민체육관 3층 비데리엄에 당송

◆ 장년2부 일일수련회

주 제: 약한 것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출 4:2)
장 소: 계교교육관 5층(501호) 장년2부 집회실
일 시: 19일(일) 12:10
강 사: 김준희 목사(장년2부 지도)

◆ 제89회 대안예수교 장로회 총회, 본 교회에서 개최

9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본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개최된다. 교단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총회 기간 중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알려드리오니 참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수요2부예배** - 총회 기간 중에도 수요2부 예배(22일)는 본 교회의 주권으로 드라지며 김성관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2부예배** - 수요2부 예배(22일)는 총회 주권으로 드라지며 수도권 내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 참석하여 총회 때 부흥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3. **새벽기도회** - 22일, 23일, 24일 새벽기도회는 총회 주권으로 드라지게 됩니다. 변형일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오시기를 바랍니다.
4. **휴강** - 총회 기간 중에는 교회의 장소 사용이 어려워서 주간성경공부와 수요 구역장 영성훈련과 총회전도대 훈련이 한 주간 휴강됩니다. 교회의 여러 장소가 총회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남성우	이재영/구재환	총회	총회	총회	김종신/한영준 방준영/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9/22-9/26)

날짜	예배	예배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9/22	수요 I		이종철 총회장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마 22:41-42) 김성관 목사
9/22	수요 II		총회장 다같이	회 개시 51:1-19) 최경자 목사 외
9/24	금요일회	7교구/태니 유종훈/한영준이 중장년	이종철 김성관 목사	김성관 목사
9/26	주일 I		정종신 오전국	내가 요동지 아니하리요(시 62:4-8) 이성진 목사
9/26	주일 II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외/소프라노 김희영(합창)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외/소프라노 김희영(합창)	고광현 배준식	내가 요동지 아니하리요(시 62:4-8) 정종신 목사
9/26	주일 III	예수가 가느라니시 외/바이올린 이예스디(비엘 오케스트라 악장)	여국진 조종환	내가 요동지 아니하리요(시 62:4-8) 김성관 목사
9/26	주일 IV	주 예수나의 감람이 외/바이올린 김유정(합창) 오케스트라 악장	이재영 안석현	내가 요동지 아니하리요(시 62:4-8) 하종철 목사
9/26	주일 V	나 행한 것 죄 외/소프라노 조예인(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득 강도용	내가 요동지 아니하리요(시 62:4-8) 김성관 목사
9/26	주일찬양		양재용 박태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로 2:1-11) 나영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본 당
전 안예 배	V 오후 3:00	본 당
	(필요없고 드리는 제배)	
	오후 5:00	본 당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본 당
새벽기도회	오후 7:30	본 당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요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일회	오후 11:00	본당 앞 출발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3호	청 년 2 부	오전 12:1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1:00			오전 12:3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장 년 2 부	오전 12:30	교육관 407호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오전 12:30	교육관 3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전 12:15	갈 밀 리 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오전 12:15	교육관 204, 205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오전 10:30	교육관 301호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제 배 다 부	오전 9:00(수화) 오후 1:00(수화)	교육관 207호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세 가 족 양 육 부	오전 9:15 II 오후 12:15	갈 밀 리 홀, 배다나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전 9:15 II 오후 12:15	갈 밀 리 홀, 배다나홀
고 등 부	오전 9:00	제2교육관 4층	총 회 연 인 이 집	주 간 교육	교육관 107호
	오전 9:00	제2교육관 4층		주 간 교육	총 회 복 지 관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국 내 외국인 신 교 부	오전 11:00	아 벨 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00	아 벨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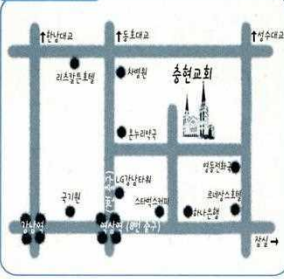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Silver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9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길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영원 전부터 간구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하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6.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인양성부, 전도원훈련, 남녀구역장 양성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천국일꾼들이 많이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이종철
- 김영훈, 여국진, 김성관, 안석현, 방준영
- 나영준, 정종신, 김용득, 고광현, 위관진
-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 하종철, 안석현, 이태복, 정종신, 양재용
-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 이성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 남도전사 송요한 (김민하)

- 정현민,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 홍순옥, 이우경, 김말자, 안태순, 김경민
- 조옥자, 강덕희, 최문실, 천은희, 김경순
- 김정자, 이우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 한성일, 한성일

■ 찬양감독 강기우 ■ 전집지휘사 서준성

■ 전집지휘사 김소연

■ 협성지휘사 허요섭 (이민희)